2024년 고3 3월 학평

2024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문학 | 징세비태록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모든 신하가 [**화신**(청나라의 실존 인물로 해당 작품에서 악행을 일삼는 반동인물임.)의 뜻을 짐작하고 **안대후**(허구적 인물로 '화신'의 악행에 맞서는 충신)]([ ]: **'화신', '안경', '안대후', '안대순' 등 이 작품이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를 추천하거늘 임금 왈,

"안대후는 짐의 수족이니 멀리 보내고자 아니 하노라."

화신이 나아가 왈,

["신이 비록 **지인지감**(사람을 잘 알아보는 능력) 없사오나 **안경은 이름난 선비라, 그런 그가 일찍이 아들들을 벼슬에 추천한 바 있으니, 자식을 아는 데 그 아비만 한 사람이 없다 하였으니, 어찌 잘못 천거하였겠사옵니까?**(과거 안경이 자신의 아들인 안대후를 벼슬에 추천했던 사실을 이용해 황제의 곁에서 안대후를 떨어뜨리고자 함.) 이 극은 흉악한 도적이라, 위세와 명망 없는 사람을 보내지 못하리니 안대후 외에 적당한 자 없사옵니다."]([ ]: 이극에 맞설 인물로 안대후를 추천하는 화신-화신은 안대후를 임금의 곁에서 떨어뜨리고자 함.)**('화신'이 '안대후'를 추천하고 있는 의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마지못해 명을 내리시니 안대후 명을 받들고, 아우 안대순과 함께 가기를 청하니 임금이 놀라,

"형제가 어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리오?"

"신의 형제 성은을 입었사옴에 한번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옵나니 어찌 위험한 지역을 사양하오며, 또한 안대순 아니면 이 일을 감당치 못할까 하여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아우를 데려가려 하나이다."(안대후의 충직한 태도)

임금이 칭찬 왈,

"진실로 충신이로다."

하시고 황금 삼천 냥을 사급하사 즉일 발행하라 하시니, **한림 형제**(안대후과 안대순)**('한림 형제'를 포함하여 각 표현이 지칭하는 인물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인하여 하직한 후 집에 돌아와 부친께 편지를 올리고 행장을 차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안대후 형제는 변방 오랑캐를 물리친다. 형제가 명망을 얻자 **화신은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로 인해 안대순은 죽고 안대후는 귀양을 가게 된다.**(화신의 모함으로 인한 시련)

이때 애주 태수 **만청길**(반동인물)은 화신과 한패라. 화신의 부탁을 들어 **안 시랑**(안대후)을 박대함이 심하더니 안 시랑이 여화와 혼인했음을 듣고 화신에게 이를 전하니 화신이 회답하되,

"여화를 가두어 둘을 떨어뜨려라."

하였거늘, 만청길이 즉시 여화를 잡아들여 왈,

"안대후는 귀양 온 죄인이라. 어찌 첩을 두고 편히 지내리오? 너는 빨리 다른 지아비를 섬기고 안대후를 거절하라."

여화 왈,

"첩은 안대후 죄상은 모르거니와, 한때만 몸을 허락하고 이제 안대후를 거절하라 하심을 봉승치 못하리로소이다."(안대후와 떨어뜨리고자 하는 만청길의 명령에 반박하는 여화)

만청길 대로하여 형틀에 묶고 때리나, 여화 안색 불변 왈,

"계집이 지아비 섬기는 것은 신하가 임금 섬김과 한가지이거늘, 백성이 지아비를 두 명 섬기지 않는다 하

여 이같이 형벌하시니 이웃 나라에 들릴까 두렵습니다. 첩은 금수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나이다."(여화의 지조와 절개)('여화'의 태도를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수능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여화'가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태수 대답할 말이 없음에 목에 칼을 씌워 옥에 가두는지라.

한편 안 시랑 풍토의 병이 든 지 이미 반년이라. 여화 극진히 구호하다가 옥중에 갇힌 후로 안 시랑 병세 날로 심하여 다만 죽기를 기다리더라.(안대후의 시련과 고난) 일일은 잠깐 조는데 창안학발의 한 노인(안대후의 조력자)(해당 작품에서 조력자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 파란 주머니를 들고 들어와 안 시랑더러 왈,

"일시 액화는 사람의 상사거늘 어찌 심려하여 병이 났는가? 나는 한나라 의원 화타러니, 저세상에서 그대 부친과 친한지라. 부친이 그대 병을 고쳐 달라고 하기에 왔노라."(비현실적, 전기적 요소)(해당 작품에 드러난 전기적 요소를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고 파란 주머니에서 환약 다섯 개(전기적 소재)를 내어 주며 왈,

"이 약을 먹으면 병이 쾌차하리라."

[하거늘 안 시랑이 일어나 절하고 약을 받아먹은 후 다시 일어나 말을 묻고자 할 즈음에 문득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심히 의괴하나 입에 오히려 약내 나며 정신이 상쾌하여 그날부터 몸이 가벼워 쾌차하니라.]([ ]: 창안학발의 한 노인의 도움으로 몸이 나은 안대후) 차시 만청길이 파면되어 잡혀가고, 왕정윤이 대신 도임한 후 안대후에게 고향 소식을 전하고 여화를 풀어 주니라.

차설(주로 글 따위에서,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를 꺼낼 때, 앞서 이야기하던 내용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다음 이야기의 첫머리에 쓰는 말). 정몽렬(반동인물)(해당 작품에서 '반동인물'에 해당하는 인물을 모두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 화신의 심복으로 벼슬이 이부 상서에 이르렀나니 일일은 화신더러 왈,

"제가 태자의 기색을 본즉 상공(화신)을 부족하게 여기고 안대후 등을 그리워하시니 만일 안대후 돌아오면 상공과 우리 무리 죽을 곳을 모를지라. 먼저 안대후 가족을 다 죽이고 왕정윤에게 서울의 벼슬을 주어 불러 올린 후 여통민으로 애주 태수를 시켜 안대후를 죽이면 후환을 가히 면하리라.(안대후를 해칠 흉계를 꾸밈.)"

한데, 화신이 깨달아 계략을 행코자 하더니 [그의 딸 화 소저가 흉계를 듣고 급히 경몽필에게 밀통하니, 몽필은 화신 몰래 화 소저와 사랑하는 사이라, 몽필이 화 소저의 서간을 보고 누이동생인 부인 경 씨를 만나 화신의 행위를 일러 주며 왈,

"내 한 계교 있으니 여차여차하면 시댁의 화를 면하리라."]([ ]: 화 소저의 도움으로 화신과 정몽렬의 흉계를 미리 알게 됨.)(내용 일치 문제에서 "화 소저'의 도움으로 '경 씨'는 화신과 정몽렬의 흉계를 미리 알게 되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고 돌아가니라.

부인 경 씨는 안대순의 아내라(안대후의 형수), 이 계획을 시어머니에게 전한 후 각각 분산할새, 부인 경 씨는 안대후의 부인 엄 씨와 이날 삼경에 길을 떠나 안대후가 귀양 가 있는 애주로 향하는지라. 수삭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소상 강변이라. 두 부인과 시비가 길가에 앉아 쉬더니 문득 수풀 속에서 오륙 인이 내달아 시비를 결박하고 두 부인을 죽이려 하였다.(경 씨와 엄 씨가 위기에 처함.) 이때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두 부인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조력자)이 나아와 문 왈,

["두 부인이 애주로 가심을 알거니와 저놈들은 화신 등이 보낸 강도라. 내 사명산에 있더니 운수 선생(두 부인에게 닥칠 위기를 알려주는 조력자)이 나더러 이 사연을 이르며 가 구하라 하기로 왔노라."]([ ]: 이미 두 부인에게 위기가 닥칠 것임을 알고 있었음.)(내용 일치 문제에서 "한 노인'은 두 부인에게 위기가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고, 강도 등을 꾸짖으니 강도 등이 욕을 하며 달려들거늘 노인이 막대로 한 번 치더니 문득 청천백일에 뇌정벽력이 진동하며 한 소년이 구름 속에서 내려와 강도 등을 결박하여 언덕 아래 큰 나무에 매고 간 데 없는지라.(비현실적, 전기적 요소) 그제야 노인이 시비 등을 풀어 주고 문득 간 데 없더라. 두 부인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하고 길을 행하여 수삭 만에 애주에 이르니 안 시랑(안대후)이 대경 대희하여(깜짝 놀라고 기뻐하

며) 나와 맞이하는지라.

– 작자 미상, 「징세비태록」

핵심 정리

■ 갈래: 고전 소설, 풍자소설
■ 성격: 전기적, 비현실적
■ 주제: 간신의 횡포에 맞서는 충신의 활약상. 권선징악
■ 특징
▪ 작자 및 연대 미상의 고전 소설임.
▪ 간신의 말로를 징계하고 충신의 태도를 권장하는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주제 의식을 따르는 작품임.
▪ 실존 인물을 악인으로 등장시켜 당대 현실에 대한 경계를 드러냄.
▪ 간신의 횡포에 맞서는 안경과 그의 아들 안대순, 안대후 부자의 활약상이 드러남.
▪ 충신의 활약상, 충신과 간신의 정치적 대립, 남녀의 사랑, 혼사 장애 등 다양한 화소가 등장함.

이해와 감상

중국 청나라를 배경으로, 실존 인물인 '화신'의 악행에 맞서는 '안경'과 그의 아들 '안대순', '안대후'를 주인공으로 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낙선재본과 나손문고 소장본이 있는데, 이중 낙선재본은 다른 작품과 달리 분량이 짧은 단권으로, 제목에서 시사하는 대로 간신의 말로를 징계하고 충신의 태도를 권장하는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줄거리

청나라 건륭 연간에 이름난 승상 안경은 간신 화신의 권세를 경계하여 소를 올렸다. 천자는 화신을 시기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듣지 아니하므로 안경은 두 아들을 천거하고 물러나려 하였는데 천자는 화신을 멀리 귀양보냈다.

안경은 무예가 뛰어난 기생 남강월과 거문고를 잘 타는 형산옥과 더불어 소일하였다. 화신이 유배지에서 왕정윤의 딸을 강제로 취하려다 왕정윤의 딸이 자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안경의 두 아들 대후, 대순이 상소했으나 천자가 듣지 않았다. 이때 운남성에 도적이 일어나자, 화신은 대후, 대순 형제를 천거하였다. 두 형제는 운수선생의 도움으로 도적을 토벌하고, 이어 임상문이 병사를 일으키자 안경은 남강월의 도움으로 크게 공을 세웠다. 태자가 임상문에게 죽임을 당하여 다시 태자 옹립 문제가 일어났다. 화신은 사사로이 천거하여 귀양을 갔다가 사면 되어온 뒤 대순의 처를 취하고자 음모하고 마침내 대순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대후도 유배지에 가 있다가 음모를 모면하고, 새로이 태자가 즉위하여 간신들을 다 벌하니 대순과 그 자손이 복록을 누렸다. 이에 천자가 세상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 일을 기록하게 하였다.

무단배포금지